

# 현대차, 미국서 상반기 43만1,344대 판매 '역대 최다'

현대차-기아 친환경차  
15만5,702대 판매 '최고'  
6월 현대차 판매량 작년비  
2.8% 감소...기아는 6.5% ↓

현대차[005380]가 미국에서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판매 기록을 세웠다.

현대차는 올해 1~6월 미국 시장에서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를 포함해 43만1천344대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이 기간 제네시스 판매량은 3만1천821대로, 이 역시 역대 상반기 최대 기록이다.

현대차의 이번 실적은 상반기 기준으로 작년에 세운 종전 최대 판매 대수(42만5천847대)보다 1.3% 증가한 것이다.

기아는 이 기간 미국에서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한 38만6천460대를 판매했다.

현대차·기아는 올 상반기 상·하반기 통틀어 최대 친환경차 판매량을 기록하기도 했다.

양사는 1~6월 미국에서 전기차, 하이브리드 모델을 합산해 모두 15만5천702대를 팔았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7% 증가한 것으로, 반기 기준으로 최대 판매 수치다.

이 기간 현대차는 친환경차를 9만466대, 기아는 6만5천236대를 각각 팔았다. 전년 대비 각각 24.5%, 8.0% 늘어난 수치다.

친환경차 가운데 최대 판매 차종



기아 전기차 EV9



현대차 싼타페 하이브리드

은 2만6천857대를 기록한 투싼 하이브리드였다.

지난달 한 달간 판매 기준으로 살펴보면 현대차와 기아 모두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현대차는 지난 6월 미국 시장에서 제네시스(5천619대)를 포함해 7만3천250대를 팔았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 감소한 수치다.

모델별 현대차 판매량은 전기차 아이오닉5가 17% 늘었고, 싼타페 하이브리드(90% ↑), 투싼 하이브리드(28% ↑), 팰리세이드(57% ↑) 등이 역대 6월 최고 판매량을 기록하며 실적을 견인했다.

하이브리드 차종 판매량은 39% 늘었으며,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 판매량이 전체 소매 판매의 26%를 차지했다고 회사 측

은 전했다. 기아는 지난달 미국에서 작년 동기 대비 6.5% 감소한 6만5천929대를 판매했다.

로이터 통신과 미 CBS 방송 등은 미국 딜러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지난달 사이버 공격을 받은 것이 자동차 업체들의 판매 실적을 둔화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전했다.

미 언론에 따르면 미국 전역의 자동차 딜러들이 매장에서 사용하는 CDK(소프트웨어업체) 판매·재고관리 시스템이 지난달 19일 랜섬웨어(시스템 접근을 제한하는 악성 소프트웨어) 공격을 받아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으며, 아직도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 내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준비현황 점검 | 보험조사협의회 개최 보험금 누수 규모 추정

다음 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중 보험금 누수 규모를 추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



성 심사 처리 기준 마련,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등을 주요 개정 사항으로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에 대해 방지 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 적정

을 구축하고 있다. 수사를 의뢰할 보험사기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청 등과 협의 중이다. 당국은 자료제공 요청권 행사,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경우에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거나 구체적인 절차를 반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 금액도 추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하반기 중 민영 보험금 누수 규모를 추정하고, 해외 주요국의 보험사기 특징 및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추진해 보험사기 방지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중전기차, 연초 부진 딛고 판매 호조

BYD, 2분기 테슬라비 1만2천대 ↓...지커-니오 6월 인도량 최대

비야디(BYD)를 비롯한 중국 주요 전기차 업체들의 최근 판매 실적이 연초의 부진에서 벗어나 호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 비야디는 가격 인하와 신기술 적용이 소비자들의 구매를 촉진, 올해 2분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판매 기록을 새로 썼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일 보도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비야디는 2분기에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98만2천747대를 팔아 올해 저조한 출발 이후 반등을 더욱 공고히 했다.

비야디는 이 기간 순수 전기차 판매량이 42만6천대를 기록, 미국 테슬라와의 격차를 좁히며 올해 1분기에 내준 세계 1위 자리를 탈환할 기회를 엿보게 됐다.

애널리스트들은 테슬라가 같은 기간 44만1천19대를 판매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테슬라는 중



국과 유럽과 같은 주요 시장에서 판매가 부진한 상태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월별 판매 보고서를 기반으로 비야디는 2분기에 전기차 42만6천39대를 판매해 21% 증가했다고 전했다. 테슬라의 2분기 인도량 추정치보다 약 1만2천대 적다.

테슬라는 2분기 인도량을 2일 발표할 예정인데, 중국 내 치열한 경쟁과 신모델 부족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6% 축소되면서 처음으로 2개 분기 연속 감소할 전망이다.

비야디는 수출도 분기 중 처음으로

로 10만대 이상을 기록했다.

비야디는 6월 한 달만으로도 34만211대의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를 판매해 월별 최고 기록을 세웠다.

비야디는 최근 멕시코에서 첫 번째 하이브리드 픽업트럭을 출시했고, 2천km 이상의 주행거리를 가진 새로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플랫폼을 공개하는 등 판매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비야디도 미국에 이어 최근 유럽연합(EU)에서 수출에 대한 역풍이 일면서 주요 시장에서 위기에 몰렸다. /연합뉴스

## EU, 중전기차 잠정관세 부과 임박... '5년간 시행' 엔 내분 조짐

유럽연합(EU)이 금명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최고 48%에 달하는 잠정관세 부과를 공식화할 전망이다.

3일(현지시간) EU와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늦어도 4일까지 중국산 전기차 잠정관세 부과 관련 규정(regulation)을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잠정관세 발효 시점은 관보 게재 다음날부터여서 4일 관보에 게재되

면 5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EU는 지난달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 예비결론을 바탕으로 기존 관세 10%에 더해 17.4%~38.1%포인트의 잠정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대상 업체에 통보한 바 있다.

EU 조사 협조 여부, 업체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일부 전기차는 최고 48.1%(10%+38.1%포인트)까지 관세율이 오르게 된다.

EU의 예비조사 통보 이후 EU·중국 간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에 착수한 만큼 당초 계획보다 관세율이 일부 낮아질 가능성은 있다.

관건은 일단은 임시 조치 성격으로 부과되는 잠정관세가 5년간의 확정관세로 이어질지다.

확정관세가 부과된다면 오는 11월 전까지 EU 회원국 가중다수결 투표를 거쳐야 한다. 가중다수결 가결 요건은 EU 인구의 65%를 대표하는 최소 15개국(EU 회원국의 55%)이다.